



전주 전성교회, 혁신동 주민센터에 생필품 기탁

지난 6일 전주 전성교회가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햇반, 라면, 삼푸 등 다양한 생필품이 담긴 꾸러미 20박스를 혁신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받은 생필품은 혁신동 내 한부모가족, 장애인 세대, 홀로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20세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 전성교회는 지난해에도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기부하여 지속적인 지역 기부 문화에 힘쓰고 있어 그 의미가 깊다.

이성순 혁신동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전해 주신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체육회, 사랑의 열매에 성금 전달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 올리기’에 동참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근 사랑의 열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74만500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정강선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았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이종수 영장 직원들도 이웃돕기에 마음을 함께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성금 전달식 등의 행사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성금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 태흥한돈 영등동 직매장 ‘착한기업’ 현판 전달

영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7일 태흥한돈 영등동 직매장을 찾아 ‘착한기업’ 현판을 전달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흥한돈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전북 고창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본사는 오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라북도 거점형 축산시설 판매처로 지정받아 영등동 직매장을 통해 의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이정희 태흥한돈 영등동 직매장 대표는 “고창에서 끼니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아버지의 권유로 교통·물류 인프라가 좋은 의선에 자리 잡게 되었다”며 “의선에서 저희 기업에게 주신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꾸준히 나누는 모범적인 향토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은미 영등2동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적인 후원을 익숙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위기가 정 밀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후원금이 뜻있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흥한돈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에서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지난 2021년에도 의산행복나눔마켓·뱅크와 관내 경로당 등에 돈을 11,400천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의산=이득훈 기자

##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 건협 전북도회, 희망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난히 힘든 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을 돋기 위해 지난 7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윤방섭 회장은 “도내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인들이 행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이어나가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을 실천함으로 협회가 소외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기부금을 포함하면 총 기부 누적액은 3억 7천 5백만 원이 된다.

송진근 도지사는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

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들이 매년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성금 기탁을 통해 이웃돕기를 실천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전반에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소방서, 화재예방 전통시장 방문행정 펼쳐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선제적 화재예방 대응을 위해 지난 9일 관내 전통시장인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방문해 현장행정을 펼쳤다.

전북 소방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설 명절 연휴 총 116건의 화재가 발생, 3명의 인명피해와 16억3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시장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겨울철 3대 전기용품인 전기히터, 전기장판 및 옐선을 접포 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백성기 소방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은 접포 상인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서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끊임없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완산여고 관광서비스과 학생들, 올해 첫 ‘백만천사’

전주완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백만천사’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님(이사장 이병관)은 지난 6일 전주완산여자고등학교(교장 박정희)에서 올해 백만천사 기부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2022년 백만천사 1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주완산여자고등학교 관광서비스과 학생들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써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부해 백만천사가 됐다. 비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로 구성된 침엽동아리 BSAU는 카페 운영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기부를 실천해 훈훈함을 전했다.

박정희 교장은 “이번 기부는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해 의미가 있다”면서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학생들의 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현재를 살아가는 전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한편 ‘백만천사’는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 기부, 소중한 사람의 기쁜 날을 축하하는 선물 기부 등 자신만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기부로도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복지재단 홈페이지([www.jjwf.or.kr](http://www.jjwf.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0080)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한 사연이 담긴 기부로도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복지재단 홈페이지([www.jjwf.or.kr](http://www.jjwf.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008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북대 이재연 학생,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전북대학교 이재연 학생(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과)이 ‘2021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청년 인재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우수인재에게 수여되고 있다.

이재연 학생은 ‘차세대 그린 도시’ 구축을 위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다수 기획하고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약 1000 시간의 생애 봉사,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리더 그룹,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 학생기자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변화 활동을 이룬 점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연 학생은 “늘 사랑을 주는 우리 가족과 멘토가 되어 준 나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공부하고 실천하며 의미 있는 곳에서 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대한민국 인재상은 전국 100명의 인재(고교생 50명, 대학생 및 일반인 50명)에게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됐다.

/정은성 기자



의산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밀반찬 지원

의산시가 성장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손잡고 밀반찬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6일 신동 대학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식당과 ‘가치 있는, 같이 먹는, 드림 찬찬’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호자의 질병이나 부재로 인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성장기 아동의 영향 균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의산시 드림스타트 아동 3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1회, 밀반찬 4종이 지원된다.

이광미 아동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은 식사 돌봄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결식우려 아동에게 영양이 풍부한 밥반찬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의산=이득훈 기자



지역문화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http://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